

# 우리들 '책문화'의 섬광적 상징

'교보'는 이제 하나의 서점만은 아니다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이중한씨

나는 '교보문고'를 지금 서점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교보 자신이 한쪽 구석에 이벤트 홀이라는 개념의 공간을 갖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교보는 대한민국의 이벤트 홀이다. 그리고 교보의 이벤트 홀은 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 교보문고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하루 8만명씩 된 사람들. 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지만, 이들은 그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서울의 러시아워 때 버스나 지하철 이상으로 붐비는 이 공간에서, 그러나 결코 화내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책을 싸주는 시간이 길게 늘어지게 마련인데, 그래도 그것을 참고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해질 때까지 많다.

멀쩡한 대낮에 택시 타기도 무섭고, 大路를 건너가기도 무섭다는 느낌을 막연히 받는 삶의

환경에서 그러나 교보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저 마음 편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보의 밀집은 말없는 하나의 진정한 저항이고, 그리고 보다 치열한 정신의 집단시위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요즘 교보에 들어서면서 책보다 사람들을 먼저 본다. 책을 만지고 들추어 보듯이 그 사람들도 만지고 들추어 보고 싶다는 충동까지 받는다. 이 끊임없이 질척거리며 조금도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한국의 세태속에서 나의 희망은 지금 이 교보문고에 오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 사람들은 근자에 전에는 전혀 팔리지도 않았던 항목의 책들도 사들기 시작했다. 전국 99%의 서점공간들에서는 단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치조차 하지 않는 항목의 책들을 교보에 오는 사람들은 사들고 간다. 이렇게 돼서 아다시피 교보의 매장만 믿고 책을 내는 출판사들까지 생겨났다. 더 슬프게 말해서 교보만 의지하는 출판사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슬픈 사연이 아니라 이 나라의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나의 표현으로 명명하자면 교보문고 이벤트의 주제는 '한국의 가능성, 그 섬광'이다.

교보문고가 10년전 문을 열었을 때 누구도 이 대형서점에 대해 그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믿지를 않았다. 그만큼 우리 책의 문화는 막연했다. 그러나 단 10년새 이 전망은 보기 좋게 깨어졌다. 하지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자세히 보려는 생각은 아직 적다.

어떤 문화든, 문화적 내용물의 전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서만 가능하다. 연극은 연극무대에 가야만 배울 수 있고, 영화도 영화관에 가서 보는 사람이 비디오로 보는 사람보다 더 영화예술을 잘 알 수 있다. 책이야 말로 신문지면이나 TV화면에서 제목을 보는 것으로는 알 수 없는 문화이다. 그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러서 이 책 저 책 만져 보는 일이 책 문화의 출발이고, 그리고 돈쓰기의 순서를 갑자기 바꿔 한권 사들게 되어야 책문화는 완성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이 충동구매일 수도 있고, 또 시쳇말로 하면 과소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의 질을 위한 문화의 소유는 실은 충동구매와 과소비로서만 전진이 가능하다. 책이나 음반을 1천원이나 1천장쯤 모은 어떤 젊은이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과소비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느냐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젊은이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잘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보문고는 아직도 막연한 것이 너무 많은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잘 살아가기를 교육시키는 시발점일 수 있다. 교보문고의 짧은 10년은 이 시발점 형성만으로도 하나의 신화이다.

이제는 외국 관광객들도 이 곳에 오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일 뿐 아니라, 서울에서 보여주고 싶은 한국문화의 가장 큰 상징이며 또한 실질내용이다. 죽은 문화가 아니라 산 문화이다. 관광객들이야말로 한국의 힘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인가. 이 교보문고의 10주년 기념이 문을 닫고 새 치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설명이 된다. 사람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이므로 새 서가와 새動線이라도 만들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철을 놓기 위해 도로를 전면으로 폐쇄하는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쪽만 막고 한쪽은 비좁은 채로 천천히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순리이다. 교보도 지하철만큼 이제는 공익적 기능이 돼버렸다. 이는 문자 그대로 지하철이며 버스에 비금가는 공공기능이다. 사유재산이지만 폐업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대중교통기능이다.

문화공중의 교통기능으로서 교보는 불편하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행복한 운명이다. 아마도 80년대의 창조적 문화실체로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장면일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넓은 장면이 아니라 여전히 비좁은 장면이다.

그러므로 나는 뜯어 고치기의 시간도 새로운 이벤트의 장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쪽은 뜯어 고치고 남은 한쪽은 더 복잡거리는 비좁음을 만들어 보는게 좋을 것이다. 진짜로 버스를 타듯 줄을 서서 한시간쯤 기다리는 이벤트가 이루어진다고,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교보문고 10주년에 대한 상찬이나 격려는 이미 다 개진된 것이나 같다. 집안의 개수나 보수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달라는 것만큼 기념비적인 주문이 어디에 있겠는가.

교보문고 20년의 기념일을 기다리자.

## 한남대학교 출판부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정동 133 T.(042) 629-7722

### 생활 법률

한남대법학연구실편 / 신국판 / 356면 / 4,700원

#### 생활 법률

흔히 현대사회를 법치사회라 한다.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법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분야를 가능한 빠뜨리지 않고 소개하였으며, 이를 실정법분야별로 체계화 함으로써 법에 대한 단편적 지식의 위험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독자들이 법의 비전문가임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쉽게 쓰되, 그 원리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학발달에 따른 법과 윤리

이경희 저 / 사륙판 / 156면 / 1,700원

#### 의학발달에 따른 법과 윤리

현대과학을 의학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된 결과, 體外受精, 受精卵移植, 代理母, 胎兒의 출생전 진단이나 胎內醫療處置 혹은 근대적인 인위적 延命裝置에 의한 腦死現象의 출현 등 지금까지의 상식, 도덕, 윤리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식의학의 진보에 의해 人工授精이나 體外受精은 단순히 不妊의 치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遺傳子操作 등을 통해서 생명의 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에 이르고, 또 臟器移植의 발달에 의해 그 필요상 腦死라고 하는 새로운 죽음의 판정기준이 주장되게 되었다.

이 책은 의사의 직업윤리인 고전적인 의료윤리의 범주를 넘은 이들 문제에 관한 새로운 의미의 의료윤리의 대두와,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원리의 구성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